

‘대승사론현의기’ 백제나 신라나

‘고려대장경’으로 돈황문서 규명

3월 20~21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대강당서

현존 최고(最古)의 불교 문헌으로 알려진 <대승사론현의기>. 2006년 최연식 교수(목포대)와 요르코 플라센 교수(독일 함부르크대)가 백제 찬술을 주장하면서 원효의 <대승사론신소>보다 60년 가량 앞선 저술로 주목받으며 삼국불교의 귀중한 자료로 연구가 진행돼 왔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가 <대승사론현의기>의 교감본 출간을 앞두고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저명한 일본학자가 종래의 백제 찬술설을 반박하며 신라 찬술설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대승사론현의기>와 그 주변을 주제로 2월 28일 금강대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최연식 교수, 플라센 교수를 비롯해 간노 히로시 교수(일본 고마자와대), 석길암 연구교수(금강대 HK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승사론현의기>에 대한 제 문제를 발표한 이토오 다카토시 교수(일본 고마자와대)는 <대승사론현의기>를 1960년대부터 연구해 온 세계적인 권위자다.

이토오 교수는 권말의 식어(讖語) ‘현경3년(顯慶3年)세차무오년(歲次戊午年, 658)십이월육일(十二月六日)홍륜사(興輪寺)학문승법안(學問僧法安)위대황급내전고경봉장어(爲大皇及內殿故敬奉章也)’를 근거로 <대승사론현의기>는 신라에서 찬술했다”고 주장했다.

이토오 다카토시 교수는 “최 교수 등이 학문승법안을 일본에서 온 유학으로 보고, 대황제를 일본 천황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당시 일본에서 천황을 대황제로 칭한 예도 없다”며 “홍륜사를 신라 사찰로 상정하고 신라 학문승인 법안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국제세미나



2월 28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대승사론현의기’와 그 주변’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연식·플라센·간노 히로시·김현학·오쿠노 미즈요시·석길암 교수.

입당해서 황제인 당 고종에게 책을 헌상했다고 해석하면 <대승사론현의기>는 신라의 저술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연식 교수는 백제 찬술설이 옳다는 반론을 펼쳤다.

최 교수는 “이토오 교수 주장에도 일리는 있고, 홍륜사가 신라사찰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식어가 나오면 백제에 대한 증거가 있었는데 기록 해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라에서 중국을 거쳐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면 황제에게 바친 책에 대한 기록이 중국에 없었어야 했다. 또 일본에서 책 가져갈 때 이런 식어를 끝까지 남길 이유가 있었겠는가?”며 “대황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밖에 없었지만 대황제 등이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연식 교수는 “원효, 의상이 백제 보덕 화상에게 열반학을 배웠듯이 백제의 저술이 신라로 전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신라 홍륜사에서 전해졌다고 해도 신라에서 저

술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태승 교수(위덕대)는 “<대승사론현의기>에 승정 직함이 나온다. 승정 명칭을 사용하던 곳을 추정하면 찬술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연식 교수는 “중국 남조의 승정제가 백제와 일본으로 이어졌다. 다만 백제에 승정제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 일본의 승정제 사용을 통해 백제의 승정제 도입을 유추할 뿐”이라며 “승정제로 찬술지를 정한다면 중국찬술도 될 수 있어서 승정 직함으로 백제 찬술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는 요르코 플라센 교수가 ‘법랑의 사상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대승사론현의기>의 의미에 대한 몇가지 고찰’을 통해 의문이 사용되는 난해한 논법 상당수가 길잡이 <대승사론현의기>를 찬술한 해군의 스승인 법랑에서 시작됐음을 보였다.

오쿠노 미즈요시 교수는 ‘<대승현론>에 관한 제문제’에서 길잡이 <대승현론>이 해군의 저작과 중복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쿠노 교수는 “도제 전사의 <정법안장>을 발췌해 <수증>이라는 책을 냈다. 현재 조동종 내부에서는 <정법안장> 내용을 발췌해 발간된 <수증>이 편찬자 의도가 더해졌다는 이유로 <정법안장>과 사상적으로 같은가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이라며 “다수의 작품이 뛰어난 <대승현론>이 길잡이의 저술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석길암 연구교수는 ‘6세기말 삼론화파의 지·설론학파에 대한 인식’을 통해 “<대승현론>과 달리 <대승사론현의기>가 지론과 설론을 동일시해 비판했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소개했다.

석 연구교수는 “유식이라고 해도 당시 지론과 설론은 확연히 구분됐다”며 “<대승사론현의기>가 지론과 설론을 동일시해 비판한 것은 해월의 심식설을 인용한 해군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토오 교수 등 세계 석학들로부터 <대승사론현의기>가 신라와 백제 등 한국에서 찬술했다는 것으로 의견이 정립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조동섭 기자

세계적인 돈황학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려대장경>을 통한 돈황문서 규명에 나선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 이하 연구소)는 3월 20~21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고려대장경을 통한 돈황사본의 재인식’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연구소는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술진흥재단 지원사업 ‘TK-IRS의 디지털 이미지 연구 지원 환경에 기반한 고려대장경과 돈황문헌 비교연구시스템 구축 및 대조연구’를 바탕으로 사본에서 인쇄본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규명

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에는 한·중·일과 미국, 영국 등 돈황학 대가들이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팡양양장 교수(상하이사범대학), 후양정 교수(난징사범대학)가, 일본에서는 다카다 도키오 교수(교토대 인문과학연구소), 오치아이 도시노리 교수(국제불교대학학원대학), 고바야시 엔쇼 명예교수(하나조노대) 등이 참석한다. 영어권에서는 웬디 아다메 교수(미국 콜럼비아대), 화이유첸 교수(미국 아리조나주대), 임레 갈랍보스 박사(영국 대영도서관 국제문화프로젝트팀) 등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이규갑 교수(연세대), 나권희 교수(경북대), 최종남 교수

(종암승가대)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오유희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의 ‘<고려대장경>과 돈황문헌 비교연구시스템’ 시연도 있을 예정이다.

오유희 소장은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고려대장경>이나 돈황사본과 같은 인문학 분야의 대규모 자원에 새로운 연구 환경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국제적인 디지털 연구지원 환경에 대한 모델의 실험과 함께 <고려대장경>과 돈황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923-7994

조동섭 기자

‘묵서지편’ 중수문서 판독 결과 수록 석가탑 수리과정 담은 보고서 발간

불국사 석가탑(국보 제21호) 해체·수리 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수리과정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

‘묵서지편의 어학적 의의’, 박물관 천주현 연구원의 ‘석가탑에서 나온 중수문서의 분리 과정과 연결 관계’ 등의



<불국사 석가탑 유물2-중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 이하 박물관)은 3월 2일 석가탑 유물보고서 <불국사 석가탑 유물 2-중수문서>를 발간했다. 박물관이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함께 발간할 전 4권(1권-경전, 2권-중수문서, 3권-사리기와 공양품, 4권-분석과 보존처리)의 보고서 중 하나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1966년 석가탑 해체·수리과정에서 발견된 묵서지편(墨書紙片)의 중수문서를 2권 여에 걸쳐 판독한 결과를 수록했다. 또한 노명호 교수(서울대)의 ‘석가탑에서 나온 중수문서의 연결 복원과 판독’, 이승재 교수(서울대)의

연결 관계’ 등의 논문과 중수문서의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 크기 영인도 함께 게재했다. 중수문서는 석가탑이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후 고려초에 중수했다는 사실과 고려시대 불국사 운영과 승려조직 등 고려 초 불교계의 동향을 알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박물관 윤성용 학예관(유물관리부)은 “4권의 보고서 중 학계의 관심이 많은 중수문서를 먼저 발간한 만큼 나머지 보고서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라며 “보고서는 문화·사회·불교·미술 사 등의 좋은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고려대장경 엑스포 파급효과 크다

“고려대장경 천년 엑스포는 328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228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정경업)에 의뢰해 ‘2011년 대장경 천년 엑스포(가칭)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흡사경영이 가능하고 국내외적 문화이미지 구축 및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나타났다.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는 투자액에 의한 파급효과 344억원과 방문객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 293억원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입장료 수입(관람객 150여만 명)에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는 고려대장경의 고유문화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고, 정책적으로도 국가문화정책 확고 및 세계문화유산 가치 확산 등이 기대됐다.

하지만 엑스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최 규모의 독창성 확보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 있는 활용을 꾀하고, 행사 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대장경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도 준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진성 기자

어필 명필 등 고필 보물 지정 길 열려

문화재청 4월 18일까지 공모

고필(古筆) 작품 보물 지정의 길이 열렸다.

문화재청(청장 이견무)은 4월 18일까지 옛 글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위해 해당 문화재 소장자 등을 일괄공모한다. 고필문화재는 그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연구 성

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괄공모 대상은 어필(御筆, 조선 왕조 왕(비)의 글씨)과 명필(名筆, 박팽년, 안평대군, 강희안, 서거정, 김구, 성수침, 이항, 김인후, 양사언, 황기로, 백광훈, 김현성, 한호 등의 글씨)이다. 간찰(簡札)류와 같이 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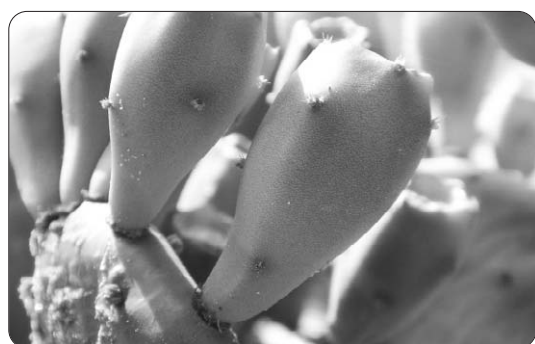
감상용이 아닌 일상적 용도로 쓰인 글씨(탁본, 현판, 각자 등)와 훼손 상태가 심해 자료적 가치를 상실한 글씨는 응모할 수 없다.

문화재청 박수희 학예연구사는 “서예류가 다른 문화재에 비해 현존 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 조사를 위해 공모 대상을 제한했다”며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서

예류는 차후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조사 및 (보물)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화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개인·단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방문접수 하면 된다. 이번에 접수된 옛 글씨는 서류 심사, 현지조사 대상 선정, 관계전문가 조사,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된다. (042)481-4915 김진성 기자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천지공사 대웅맹정진달마 천궁회천도법으로 남녀불임병을 퇴치 귀신포망을 넘어 육신병, 정신병, 잡신병, 불임병을 태양 진광진법으로 사람에게 도리를 다하는 도통군자 육경신 대법회

수명과 생명의 근본은 천궁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는 죽음의 뿌리를 끊는데 있느니라.

●경신행으로 귀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천문도통으로 죽음의 뿌리를 끊고 막힌 운을 도통하여 미래를 창조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스런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도통군자 천지공사 조인당 되시고 건강과 생명을 찾아 만사형통하는 대웅맹정진 수행법회에 도통하시고 죽지않는 법전수 받으세요.

천지공사 경신도통법은 지구탄생과 더불어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내려진 도법으로 만세에도 전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 감춰진 것을 금년 기축년 윤달때이므로 천운인인 태일대사는 만천하에 전하고 경신도법을 전하는 것은 후천대도를 도통군자 후학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득도에 따라 천도는 드러나지 않게 지도는 움직이지나 멸하지 않게 인도는 그 사람 그 자리와 기국인자에게나 전하는 것이고 이득이나 취하는 자나 문중이나 도반을 배신하며 특히 스승을 배신하는 자에게는 삼가할지이다.

●천지공사 경신도통이란?? 죽음의 뿌리를 끊고 생명을 연장하는 비법이고 치료 받지도 임신 안되고 신병으로 치료해도 남녀불임증으로 고통받는 전립선을 제도, 임신하여 가정을 꾸제하는 기도이며, 만병을 다스리고 귀신 잡신도 제도할 수 있는 오직 천지공사태양맹정진 기도 뿐인 것이다.

달마천궁 회천 경신도통이란 - 하늘명에 가장 높은 도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주문이며 종교가 이명어 탄생 되기전 창조주께서 지구촌 인간들에게 가르쳐준 원형도통으로 도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차원 높은 도법으로 다스렸던 것이고 지구촌 병은 모두 귀신잡고 동물, 생물, 식물, 미물 등의 병으로 죽고 병마와 잡신 영혼을 물리칠 수 있는 주문인 것이고 경신기도인 것이다. 이 기도는 남 여노소, 학력, 종교를 초월 경신일에 초능력을 얻어 만가지를 제도는 대도법 경신주문인 것이고, 이 기도에 그대를 초대합니다. 지구촌 온난화로 각종 질병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달마천궁회천경신기도 도법인 것이다.

동양철학특별강의의 본 달마중단에서는 사주, 성명, 운명학에 뜻이 있는 새로운 후천달마도법으로 후학들에게 뜻이 있으신 분과 본중단 입증을 원하시는 분은 환영합니다.

●특별기도 → 금년 윤달때 기축년은 조상의해이고正月은 태양이고 2월은 달이며, 3월은 용이며, 일월성신인 달 남녀임신이 안되는 불임증과 딸만 있는 가정을 위하여 양 3월 15일 일요일부터 특별 49제 칠칠제 및 백일기도를 입제하오니 불임자 및 특남발원기도에 동참하시어 자손에 소원성취 하시고요 사람됨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천안통 수행은 즉시 도통견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삼독의 뿌리를 끊고 생부처니을 내가슴에 즉 마음 자리에 모시는 것이고, 모든 수행자들에게 달마천궁회천법 수행으로 견성도통하여 천하제일의 엄불도통 참선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 의술도통으로 만병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인류도통군자 사명자 되는 특별도통 주문으로 득도하십시오.

◆천하대도 천안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포망을 넘어 생명을 관리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도통군자 스승 되시어 지구촌 이그리진 법도를 세우는 도통군자 되소서.

◆제2도장 태양의 집 -도인과 진인 들이 출현하는 수행도량 기도처 계몽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울동유, 비산비야, 비승비승 태양의 집 ※ 특히, 천지공사달마 천궁회천법으로 해안을 넘어 동통가부정자로 잘 사는 비법과 병 없이 수행장수 건강하게 사는 달마천궁회천도통은 천정비법에 걸친 진 비법장인 비법인 것이다. 천지공사 전인물련 경신수행 기도수행처 - 성일자:경신삼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7728-6707 세계불교달마중 육경신 도통회 제2도장 태양의집

●입제 : 양력 2009년 3월 15일(음, 2월 19일 일요일) (해시)
●해제 : 양력 2009년 3월 16일(음, 2월 20일 일요일) (해시)
02-821-6622, 821-7767, 016-239-3110
●농협 029-01-167866 택달미 (선착순 접수 간편한 곳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6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교육원
웅 조 달 마 경 신 도 통 회
일한 세계불교 달마중 중 본산 태일합장